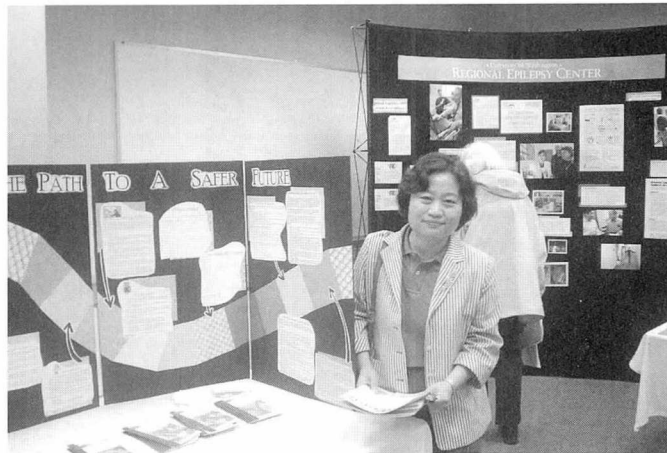


| 해외산업간호정보 |

## 미국 슈퍼마켓에 등장한 미니클리닉(Miniclinic)이란?



박 영 임

대전대 간호학과(워싱턴대 간호대학 방문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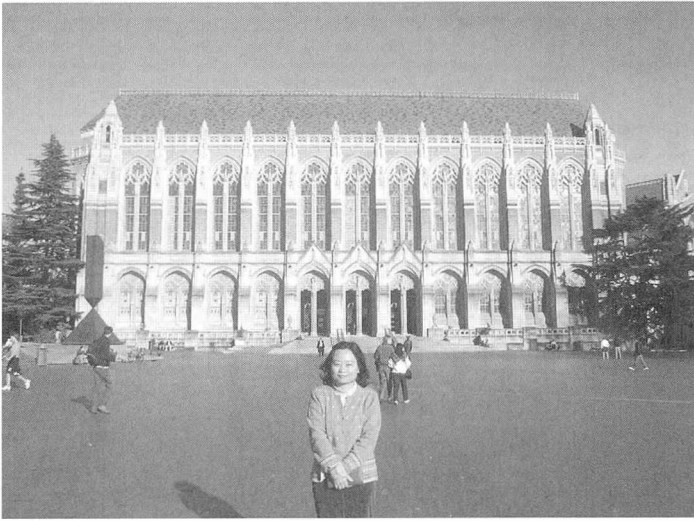
미국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Healthy People 2010'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계의 주요 이슈의 하나는, 의료비부담의 증가에 따른 의료보험료의 급증과 의료보험 가입률의 저하로 많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Wal-Mart, Rite Aid와 같은 유명한 슈퍼마켓이나 약국 체인점, 쇼핑몰 등에 등장하여 점차 그 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보건서비스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다양한

미니클리닉(Miniclinic, MinuteClinic)들이다. 대중매체에서는 석사학위와 가족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진료원이 신속하게 만족스러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상업광고도 하고 있다. 이들 미니클리닉 운영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편리성과 저렴한 비용부담 측면에서 대부분 긍정적이나, 일부 의료인들의 부정적 시각은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 미니클리닉의 증가이유는 무엇인가?

의사와 예약하여 하루나 이틀을 기다려야 하고, 다시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지체하는



대신 자신의 집과 가까운 슈퍼마켓에 있는 미니클리닉에 예약 없이 가셔도 곧바로 진료 받고, 처방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진료를 받은 후 시간이 남으면 필요한 생활물품을 함께 살 수도 있고, 만일 다른 환자가 있어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없으면 쇼핑을 먼저 하고 와서 진료를 받는 편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보건서비스 이용을 선택하고 있다.

월마트의 경우는 올해에 50개 이상의 미니클리닉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반인들은 물론 자사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클리닉 운영은 기본적 의료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뿐 아니라, 저렴한 의료비용과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으로 4천 6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비가입자들에게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니클리닉 운영의 문제점들이 의료인들과 논쟁 중에 있지만, 2005년 9월에 2개 주에서 20여개에 불과했던 숫자가 2006년 말에는 17개 주에서 300여개 이상이 운영될 전망이고 보면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미니클리닉의 급성장 요인은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이다. 다른 서비스분야와는 달리 보건 의료서비스의 향상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소비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GDP의 약16%인 2조 원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부담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적시에 기본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국민의 3분의 1만이 자신이 아파서 전화한 날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의료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기다리기 보다는 곧바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대부분의 미니클리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료를 제공하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직장근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점심시간을 잠시 이용할 수 있고, 교통체증으로 예약된 의사방문이 불가능하거나 의사진료가 끝난 경우의 환자들이 가능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큰 장점이 된다.

또한 저렴한 비용도 소비자를 끌어드리고 있는데, 특히 의료보험료에서 자기부담금 등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응급의료기관(urgent-care centers)이 많아지고는 있으나, 미니클리닉처럼 지불가능성이나 신속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또 다른 증가 원인으로는 클리닉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Take Care와 같은 미니클리닉 운영의 경우, 일년에 약 25만~35만불 정도

가 들고, 시설에 필요한 면적이 크지 않으며, 다른 약국이나 상점들은 소비자를 보다 많이 유입하게 하는 미니클리닉 설치를 환영하고 있다.

**누가 어떤 건강문제를 진료하는가?**

대부분 처방, 검사, 기본진료 등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진료원(Nurse practitioner, NP)들이 미니클리닉에서 진료를 제공한다.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는 매우 기본적인이고 간단한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다.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과 같은 기본검사, 예방접종, 인후염을 포함하여 약 24종의 기본의료처치 등이다. 필요시 처방된 약은 바로 옆에 있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서 병원처럼 약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사업자금을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지 않는 것처럼, 대퇴 골절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미니클리닉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이러한 시설이용의 범위를 말해준다. 또한 이들 미니클리닉은 충분한 자격과 경험으로 준비되고, 잘 개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전문간호사들이 경미한 통상질환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점도 유리한 측면이다.

**소비자의 의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과연 이들 미니클리닉이 과중되고 있는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 반응이다. 미니클리닉을 이용한 비용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25~70불 정도로 의사의 진료비보다 저렴하다. 일부 치료나 예

방접종의 경우는 더 비싸기도 하나, 대부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네소타 한 지역의 Blue Cross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비슷한 조건에서 비교했을 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것보다 절반 정도로 의료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보험자의 비용부담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다른 보험회사들도 잇달아 미니클리닉을 자사의 의료제공자로 포함시키는 추세로 나타났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이 미니클리닉을 이용하는 것이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는 것은 곧 생산활동 시간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회사에서는 만일 직원이 미니클리닉을 이용할 경우, 자기부담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 중의 하나는, 이들 미니클리닉의 대부분은 현금 지불만을 허용하고 있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적보험 가입자들은 제외되며 사보험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금성은 미니클리닉 운영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며 영리추구의 상업성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방접종처럼 일부 처치가 의사 진료보다 비용지출이 커지는 면도 있으나, 방문한 당일 날에 대기시간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 받는다는 점에서 미니클리닉 이용을 선택하는 것이다. 만일 초과비용 지불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미한 건강문제임에도 의사진료를 예약하고, 며칠이나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고통을 겪는 방법이 있다.

**의사들의 우려는 무엇인가?**

이러한 미니클리닉에 대한 대부분 의사들

의 반응으로 우려하는 것은 미니클리닉에서는 질병관리에 필수적인 환자와 제공자간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료기록이나 추후관리가 없기 때문에 의사들처럼 책임감 있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포괄적으로 환자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RediClinic이라는 미니클리닉 운영자는 이용자의 과반수가 일차진료의가 없으며, 그런 경우, 의사들에게 의뢰하는 일이 흔하여 오히려 의료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미국가족의협회(AAFP)에서는 최근 회원의사들에게 진료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진료비를 낮추도록 요청하였는데, 이와 같은 제공자간의 작은 경쟁 효과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의사들은 환자들이 편리성으로 이러한 클리닉을 쉽게 이용하다보면 심각한 질병을 간과할 수 있고, 신속하게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증상을 가볍게 판단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료원들은 충분한 교육훈련과 임상경험을 통해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문제를 구별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 전문인들

이다. 의사들의 우려와는 달리 미니클리닉은 오히려 의사의 진료를 보완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미니클리닉에서는 환자에게 일차진료의가 있는 경우 자신이 시행한 진료결과를 송부해주고 있으며, 질병이 심각한 경우는 주치의 진료를 받거나 병원에 가도록 의뢰해 준다.

오히려 일부 의사의 경우, 자신이 바로 진료해 줄 수 없는 경미한 문제는 가까운 미니클리닉을 이용하도록 의뢰하고 있어 경쟁적 관계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만일 인후통과 같이 곧바로 진료받아야 될 환자가, 의사진료를 위해 하루나 이틀을 지체하거나 아예 진료받기를 포기한다면 질병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의료보험이 없는 취약계층에서 의사진료를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환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시 곧바로 간단한 진료를 통해 고통을 경감시키고 질병 악화를 감소시킨다면, 이들에 의한 일차 진료의 예방적 효과는 국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참고 자료

- Unmesh Kher, "Get a Checkup in Aisle 3", Time, March 20, 52-53, 2006.  
<http://www.memag.com/memag/content/In-store-clinics:Should-you-worry?>  
<http://www.rangelmd.com/2005/10/minidoc-in-box.html> "MiniClinic" in Grocery Stores.  
<http://www.allbusiness.com/periodicals/article/Miniclinics:trend,threat,or-opportunity?>